



이 재 택

아버지모임 전국연합 회장

“가족산책부터 시작합시다”

“좋은 아버지요? 친밀감이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야겠지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려면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의미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일이나 직업적 성취도 좋지만 가족의 가치를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됩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야죠.”

사람들은 그를 가족문화운동가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문제전문가, 부모교육전문가라고도 한다. 그런 이재택(43)씨에게 얼마전 직함이 하나 더 생겼다. 지난 3월17일 ‘아버지모임 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그가 회장을 맡게 된 것이다.

부천YMCA 아버지교실, 청주 좋은아버지가 되는 모임, 고양Y 좋은 아빠모임, 부산 아버지들 모임을 비롯한 전국의 21개 아버지 모임이 ‘연합’을 구성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였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막막했었는데 의논할 곳이 생겼다”면서 좋아라들 한다고. “연합이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모임들끼리 서로 돕도록 연합이 도와주는 거

죠. 회원들 교육은 지역 모임마다 알아서 하니까 연합은 지역지도자 교육을 해야겠고 PC 통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회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번씩 사례발표회를 갖는 것도 좋겠죠.” 이들 ‘아버지모임’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회의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캠프’, 가족 시낭송 등과 다양한 형태의 아버지교육이다.

이재택씨의 직업은 기업체 사원교육 전문강사. 처음엔 ‘인간관계’를 주로 강의했지만 이젠 부모교육 전문가로 더 유명하다. 박한상 사건 같은게 나면 예전엔 언론에서 정신과 의사부터 찾았지만 이젠 기자들이 그에게 먼저 뛰어오는 형편이다. 그는 90년부터 전국을 돌며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아버지 모임을 만들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임만 줄잡아 20곳이 넘는다. 강의 말고도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직접 아버지대학강좌를 만들어 2기까지 배출했고 ‘아버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나 ‘한울타리 가족모임’은 그가 직접 만들었다. 전국연합 회장을 맡게 되면서 이들 모임엔 시간을 못내는 형편이라고. 오는 6월엔 그간 발로 뛰면서 검증한 사례들



을 모아 「좋은 아버지가 되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그가 어느 자리에서든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실천’이다. 그는 이를 위해 여러가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 ‘가족들에 사랑 표현하기’도 그 가운데 하나. ▲하루 세번 즐거운 눈맞춤 ▲하루 두번 교육 안아주기 ▲하루 한번 긍정적인 말로 관심 나타내기 그 것이다. 이처럼 그가 제시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또 그만큼 잊고 살아온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첫걸음은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쉽고 최고 좋은 것이 ‘가족산책’이죠. 그러나 막상 이를 실천하는 아버지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저요? (웃음) 한 60점이나 될까요? 그래서 면죄부를 받기 위해 얼마전 아들과 한달 가까이 자전거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4박25일간 함께 지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언론을 통해 아버지 모임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전화도 많이 받았다. “아이가 가출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냐” “남편이 아이를 자꾸만 때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전화들이다. “지역마다 아버지모임이 하나씩 있다면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아버지모임이 3백개만 만들어질 때까지 땀 겁니다.”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힘주어 말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사회가 나에게 준 내똥의 일이고 내 태어난 소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뀐다는 그의 신념을 이젠 많은 아버지들이 나눠 갖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김보현 기자〉